2020.07.08. CPI Bunker

이윤규

한국싱크탱크

1. 중국 「하이난 자유무역항 조성방안」의 주요 내용과 전망

대외경제정책연구원. 김홍원. 20.07.02. <http://www.kiep.go.kr/sub/view.do?bbsId=worldEcoFocus&nttId=208201&pageIndex=1>

▶ 2020년은 중국정부가 하이난(海南) 자유무역항 조성을 본격 추진하는 해로, 최근 관련 정책의 가이드라인이 발표되었음.
 - 중국 최남단에 위치한 하이난 섬은 중국 개혁개방 40주년이자 하이난 경제특구 설립 30주년이었던 2018년, 중국 유일의 자유무역항으로 지정되었음.
 - 하이난 자유무역항 조성이 본격 추진되고 홍콩을 둘러싼 미·중 갈등이 심화되는 상황 속에서 홍콩과 유사기능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되는 하이난 자유무역항 조성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음.

▶ 중국정부는 「하이난 자유무역항 조성방안(海南自由贸易港建设总体方案)」에 무역, 투자, 금융 관련 규제완화 조치를 포함하였고, 관광과 연계된 서비스업 및 첨단기술산업의 발전에 초점을 맞춤.
 - [무역] 수입관세 및 비관세 조치의 폐지가 포함되어 있으며, 차후 「관세부과 수입상품 리스트」, 「서비스 무역 네거티브 리스트」 등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됨.
 - [투자] 법인세, 소득세율 인하조치 이외에 하이난에 별도로 적용되는 「시장진입 네거티브 리스트」, 「외국인투자 네거티브 리스트」가 차후 마련될 예정임.
 - [금융] 외환거래 규제 완화는 기존에 시행되던 자유무역계좌 도입 수준에 머물러 있고, 새로운 형태의 역외 투자 및 해외 채무 관리, 선도적인 금융업 개방 확대에 대한 구상은 초기 단계에 그침.
 - [특화산업] 관광과 연계된 서비스업 및 부존자원을 활용한 해양서비스 산업에 특화된 자유무역항으로 조성할 계획임.

▶ 하이난 자유무역항은 일부 홍콩과 같은 이점을 가질 것으로 예상되며, 실제 홍콩과 유사한 수준의 무역·투자 자유화를 실현할 수 있을지는 후속조치를 검토해보아야 함.
 - 수입관세 및 비관세 조치의 폐지, 외국인투자 제한 완화, 법인세 및 소득세율 인하 등 부분적으로 홍콩과 유사한 이점을 가질 것으로 보이나, 관련 세부 조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.

▶ 현시점에서 파악된 바로는 하이난 자유무역항이 향후 중계무역 기능을 겸비한 의료관광특구로 발전할 가능성이 크며, 전 세계 기업을 대상으로 무역·물류·금융·전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홍콩의 역할을 대체하기는 어려울 전망
 - 하이난 자유무역항 조성은 앞으로 30여 년이 소요되는 장기 정책사업으로, 관련 세부 정책이 아직 구상단계에 머물러 있어 발전 전망을 가늠하기에는 이름.
 - 다만 면세구매 제한 완화, 관광자원 개발로 인해 관광업이 우선 발전할 가능성이 크며, 서비스업과 첨단기술산업의 육성을 위해 투자규제 완화 및 세율 인하 이외에 다년간 유무형의 관련 인프라가 조성되어야 할 것임.

2. 악화되는 미중경제관계와 코로나사태[세종정책브리프 2020-08]

세종연구소. 김기수. 20.06.19. <http://www.sejong.org/boad/1/egoread.php?bd=3&itm=&txt=&pg=1&seq=5393>

□ 코로나의 세계적 전파, 막대한 인명 피해와 경제적 손실을 초래

❍ 언론의 자유가 없는 중국의 정치사회적 특징이 코로나바이러스를 조기 에 통제 못한 핵심 이유라는 것이 서방의 시각,

   ​중국 책임론 급부상

​❍ 미국 등 서방 피해국들을 중심으로 중국에 대한 피해 보상 청구 방안이 구체화되기 시작

□ 특히 최대 피해국인 미국의 입장이 중요한데, 그들의 인식과 사고는 의학적 수준을 뛰어 넘고 있음

❍ 2001년 중국의 WTO 가입을 기점으로 구체화된 중국경제와 세계화의 접목 이후, 중국의 정치경제체제에 비추어 중국과

   세계화가 조화를 이룰 수 있는가라는 근본적인 의문이 미국에서 제기됨

❍ 특히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미국의 인식은 부정적이었는데, 우선 사회주 의 색채가 농후한 중국의 경제체제를

   시장경제로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 고 판단, 지난 2년 동안 미중 경제마찰에는 그런 미국의 사고가 녹아 있음

❍ 이런 상황에서 코로나 사태가 발생하자 미국은 세계화 경제질서를 중국 과 함께 영위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생각

□ 미국 대중 경제공세의 구체화

❍ 중국을 세계경제 가치사슬(GVC: Global Value Chain)에서 떼어내는 작 업, 즉 디커플링(decoupling)이 미국 전략의

   핵심 내용

❍ 미국 증시에 상장된 중국기업의 상장 폐기, 미국 기술을 활용하여 제조된 제 삼국 제품의 화웨이 수출 금지, 중국의 24개

   기업을 포함한 총 33개의 첨단 산업 기관에 대한 미국 상무부 제재 등, 중국기업에 대한 압박 정책 실행

❍ 미국의 동맹국 및 우호국을 중심으로 ‘경제번영네트워크(Economic Prosperity Network)’라는 새로운 국제경제 공동체

   구축 착수, 중국을 배제한 친미 경제블럭의 가시화(중국 고립화 정책)

❍ 중국 역시 내수 중심 경제로의 전환을 통해 대응하려 하지만 소비의 획기 적인 증대 없이 내수 활성화 경제시스템을

   만들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 됨

❍ 한국의 경우 공급망에 중국 이외의 다른 지역을 추가시키는 **차이나 플러스 원(China plus one) 전략**을 적극 추진할
   필요 있음

❍ 경제번영네트워크에 한국의 참여를 미국이 종용하고 있는바, 향후 행보에 는 가치동맹의 의미가 반영돼야 함